

휴대폰/전기전자 | 비중확대(유지)

MWC 2016 Preview ① : 갤럭시 S7과 G5의 귀환

올해 MWC(모바일 박람회)는 2월 22일부터 25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이번 박람회의 첫 번째 관전포인트는 2월 21일 공개되는 삼성전자와 LG 전자의 신규 플래그십 스마트폰입니다. 갤럭시 S7은 외적인 스펙 강화보다는 활용성에 집중한 성능 개선이 예상되며, G5는 메탈케이스와 듀얼카메라 등 새로운 디자인의 채용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2015년 부진했던 S와 G의 2016년 가능성을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갤럭시 S7, G5 : 2월 21일 공개 예상

- 스마트폰 등 IT 모바일 기기의 박람회인 MWC (Mobile World Congress)는 2016년 2월 22일부터 25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 예정
- 삼성전자와 LG 전자는 바르셀로나에서 개최일 하루 전인 2월 21일에 간판모델 갤럭시 S7과 G5를 공개 계획

갤럭시 S7, 외적인 스펙보다는 활용성에 집중한 신규 플래그십

- 갤럭시 S7은 패널 사이즈 및 타입(엣지 여부)에 따라 2~3종으로 출시 예상
- 당초 기대했던 3D 터치 및 듀얼카메라의 적용은 쉽지 않을 것
- 후면 카메라 성능에 주목. 저조도 환경에서의 촬영 기능을 향상시킨 12MP 카메라(브라이트셀 이미지센서 적용) 또는 20MP 이상의 초고화소 카메라 채용 예상
- 방수/방진 기능 강화 : 갤럭시 S5, IP67 → 갤럭시 S6, 부분 방수(기능 하향) → 갤럭시 S7, IP67
- 마이크로SD 카드 채용 유력

G5, 메탈 옷을 입고 돌아온 듀얼카메라 스마트폰을 기대한다

- G5는 메탈케이스 채용이 유력
- 메탈케이스를 채용하면서도 배터리 교체가 가능한 디자인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
- G5의 후면부에 듀얼카메라 채택 전망. LG 전자는 이미 2015년 하반기 출시한 V10의 전면부에 제한적인 기능의 듀얼카메라 적용 경험 보유

신규 스마트폰, 스펙 변화 크지 않을 것. 향후 스마트폰 변화의 중심은 듀얼카메라와 플렉서블 OLED

- 2월 신규 출시 예정인 플래그십 스마트폰들은 2015년 대비 스펙(Specification) 면에서의 큰 변화 포착되지 않음
- 향후 스마트폰 변화의 중심에는 듀얼카메라와 플렉서블 OLED가 자리매김 할 것. 듀얼카메라가 채용되더라도 이중 초점 및 시야각 확대 뿐 아니라 심도 인식(3D Depth Sensing)과 저조도 환경에서의 촬영 화질 개선 여부가 중요
- 신규 플래그십 출시와 관련해 수혜 부품사로는 서원인텍과 유아이엘을 주목. 갤럭시 S7에 방수/방진 기능이 강화되고, 마이크로SD 카드 채용이 확정될 경우, 내장 소재 업체들의 부품 수요 증가가 기대되기 때문

Compliance Notice

- 작성재(박형우)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본 보고서의 발간시점에 해당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판단 4단계(6개월 기준) 25%이상 → 적극매수 / 10%~25% → 매수 / -10%~+10% → 중립 / -10%미만 → 매도